

조선대 '해외 취업 잘하는 대학' 자리매김

고용노동부 'K-Move스쿨 연수과정' 2년 연속 우수과정 선정 전담직원 배치·체계적 교육·5개월간 해외 현지 연수교육 진행 2015년부터 104명 해외 취업... 지난해 2배 60명 연수생 선발

조선대학교가 해외 취업 잘하는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

조선대(총장 민영돈)가 고용노동부의 'K-Move스쿨 연수과정'에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과정으로 선정돼 지역의 '해외취업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선대는 최근 2021년 K-Move스쿨 연수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계획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과정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기존 운영예산의 10% 증액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K-Move스쿨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와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해외취업 핵심사업인 'K-Move스쿨'은 외국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여학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해 해외취업을 돕는다.

조선대는 K-Move스쿨 연수과정은 어학교육 및 직무교육 등의 연수교육을 약 5개월간 진행하며, 사전에 확보된 해외 취업처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취업을 결정하고 지원한다.

상경계열은 경영사무, 마케팅, 회계 등 연수생의 전공과 관련된 사무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공학계열은 품질관리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해외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직무에 기반을 둔 양질의 취업처를 제공받는다. 이후 미국 각지에서 1년 이상의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생 상담의 경우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해외 인턴 과정 이후에는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수생들을 평가해 한국 본사 등 정규직 취업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선대는 2년 연속 취업을 100%를 달성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조선대학교 K-Move스쿨 연수과정은 지난해와 달리 2배 이상의 인원인 60명의 연수생을 선발해 운영한다. 또한 LA상공회의소, 현지 취업처 등과의 직접 교류협약을 통해 200곳 이상의 해외기업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윤오남 취업학생처장은 "앞으로 많은 학생들에



지난해 'K-Move스쿨 연수과정'에 참여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미국 현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게 해외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경험을 통해 국내 취업으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며 "양질의 해외 취업처를 꾸준히 발굴해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과정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K-Move스쿨' 연수과정을 운영해 104명을 취업시킨 조선대는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취업을 100%를 기록하고 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조선대는 경성계열 '미국취업 국제경영인양성 및 경력개발과정'에 이어 2021년부터 공과계열 '미국취업 국제품질관리 실무자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수료생 전원 100% 취업을 달성하는 등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새내기 유권자 참정권교육

선거법 개정 고교생 유권자 광주 6000명 전남 8000명 광주·전남교육청 선거교육

광주·전남도교육청이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을 위한 참정권교육을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확대된 학생 참정권 활성화를 위해 학교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참정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일부 개정돼 학생들의 정당 가입과 선거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참정권교육 활성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16세 이상 학생들의 정당 활동과 18세 이상 학생들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시 교육청은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새내기 유권자가 될 고등학생들의 권리를 안내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 관내 모든 학교가 연간 1시간 이상 참정권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강연콘텐츠, UCC 공모전 등 학생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담당 교원들의 참정권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와 연구회도 운영한다. 법령 해석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시 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 창구도 넓힌다.

전남도교육청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미래의 유권자인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을 진행중이다.

전남도 내에서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4733명, 전국동시지방선거에 8397명의 학생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교내 선거운동 및 학생 선거교육에 대한 유의사항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교내 선거운동 범위', '교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 참여학생 지도를 위한 선거교육' 등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교수들 '생애 첫 연구지원' 잇단 선정

호남대학교 교수들이 과기부 '생애 첫 연구지원사업'과 '이공분야 신진연구자'에 잇따라 선정됐다.

최윤하 간호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2년도 상반기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생애 첫 연구 신규과제 공모에 선정됐다.

'생애 첫 연구 사업'은 정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기회 제공과 연구분야를 강화하고자 최대 3년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윤하 교수는 2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재

간호 PBL 온라인 VR 콘텐츠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정은 교수도 생애 첫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문 교수는 3년간 9000여만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당뇨병 진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당뇨병성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박지훈 건축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2년도 상반기 이공분야 기초연구 사업-생애 첫 연구' 신규과제 공모에 선정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신입생 알짜스쿨'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학과장 박연옥)는 최근 사흘 동안 교내 상하관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알짜스쿨을 진행했다. 교수진과 재학생 멘토들은 신입생들이 학교와 학과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슬기로운 대학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대, 초기창업기업 지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까지 23개 분야 참가 기업 모집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초기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대는 오는 24일까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총 23개(일반 19개·그린 4개) 분야에 참가할 기업을 선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창업공간과 투자 연계,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창업 동아리, 창업 교육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해 성장을 돕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개인과 법인 창업기업이다. 신청 접수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대 창업지원단 창업포털(http://startup.gwangju.ac.kr)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광주대는 지난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전환 이후 현재까지 6년 연속 사업을 진행하며 호남지역 초기창업기업 발굴과 대학 내 창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완성 광주대 창업지원단장은 "창업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등 지역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며 "올해도 초기창업기업들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목포대학교-전남교육청 교육협력관실 설치·운영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와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양 기관 간 교육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목포대-전남도교육청 교육협력관실을 설치,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목포대학교 교육협력관실은 ▲고교학점제 대학 연계 사업 협력 ▲진로 및 진학 교육 협력사업 ▲기초 기본 학습 및 지역인재 육성 협력사업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사업 운영 지원 ▲전남도교육청 교직원 대상 계약학과 개설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전남도교육청과의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협력관실은 대학본부 기획처 내 설치했으며, 전남도교육청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서기관, 장학사, 주무관 등 4명)이 다양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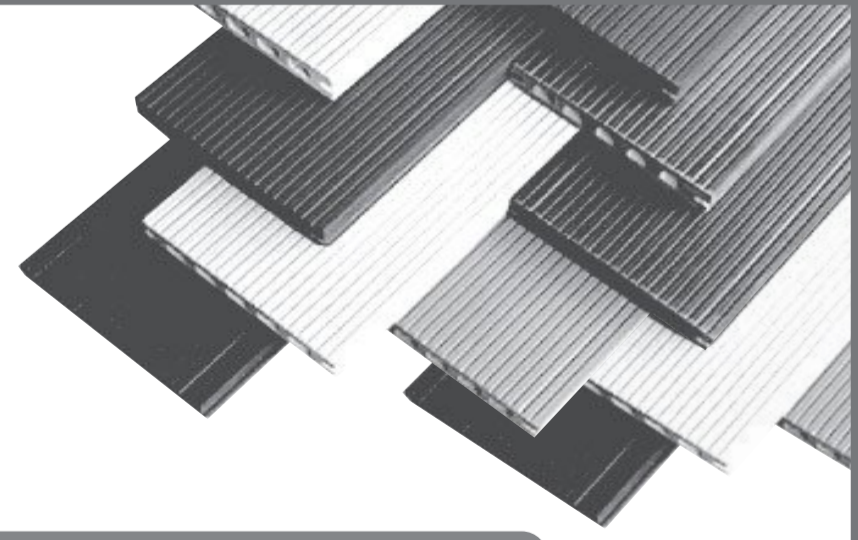
박민서 목포대 총장은 "교육협력관실 설치·운영을 통해 교육협력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목포대가 명실공히 지역 중심 국립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